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이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 · 정미경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1. 서론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소속하는 집단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집단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의 삶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출발하여 관계로서 성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계가 조화롭고 만족스러울 때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는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¹⁾. 특히, 사회적 인지 능력이 확대되는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대인관계가 이후 대인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대한 개념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주의(lookism)라는 신체와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져 개인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 가치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3,4)}. 전⁵⁾은 객체화된 신체 의식은 자신의 신체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바라보며, 관찰하고 감시를 통해 이용해야 할 객체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들과 부정적인 신체 경험이 스스로에게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사고라고 하였다. 또한 김⁶⁾은 신체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상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동义的 의미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신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관리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으로 현대 사회의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의 대인관계와 행복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동시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잘못된 외모관리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기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⁷⁾ 현대인에게 있어 신체는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존재인지

접수일: 2020년 12월 15일 최종수정일: 2020년 12월 23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2월 23일

교신저자: 이지영, (52655) 경남 진주시 의병로51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Tel: 055-740-1835, Fax: 0303-0008-1840

E-mail: myolan@hanmail.net

를 표현할 수 있고⁸⁾,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받는 속성이 되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⁹⁾.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대인관계 뿐 아니라 향후 임상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동료들 간의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상담, 구강보건교육 등 치과치료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⁰⁾. 또한, 재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 실무 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현장실습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 부정적 대인관계의 경험은 전공에 대한 부적응과 취업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인관계유능성은 개인의 행복과 성장, 나아가 소속된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고, 조직은 사람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이 대인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¹¹⁾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¹²⁾.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 등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13-15,4)}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 정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만의 개성과 신체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남에 소재한 J보건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220부를 분석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체 74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9문항, 신체의식 16문항, 신체존중감 18문항, 대인관계유능성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 코딩하였다.

2.2.1. 신체의식

신체의식은 McKinley와 Hyde¹⁶⁾가 개발한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를 바탕으로 김¹⁷⁾ 등이 번안한 설문지를 김⁶⁾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으로 신체감시성 8문항, 신체수치심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0$ 이었다.

2.2.2. 신체존중감

신체존중감은 김¹⁸⁾ 개발한 한국판 척도를 바탕으로 김⁶⁾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으로 외모존중감 6문항, 체중존중감 3문항, 체기능존중감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1$ 이었다.

2.2.3. 대인관계유능성

대인관계유능성은 한¹⁹⁾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김⁶⁾이 재사용한 것을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으로는 관계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5$ 이었다.

Table 1. 측정도구 신뢰도

구분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신체의식	신체감시성	8	.760
	신체수치심	8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6	.861
	체중존중감	3	
	체기능존중감	9	
대인관계유능성	관계형성 및 개시	8	.885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	
	타인에 대한 배려	7	
	갈등관리	6	
	적절한 자기개방	3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는 t-test 및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정은 Levene 통계량,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대인관계유능성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남자 0.9%, 여자가 99.1%으로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 35.9%, 3학년 36.8%, 1학년 27.3% 순이었다. 연령은 20~24세가 98.6%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은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72.7%, 실습 경험 없는 경우는 27.3%였다. 신장은 160cm~169cm가 56.8%로 가장 많았고, 150cm~159cm 36.4%, 170cm~179cm 6.8% 순이었고 몸무게는 50~59kg이 47.7%, 40~49kg 26.4%, 60~69kg 20.9%, 70~79kg 3.2%, 80kg 1.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경험은 68.7%가 경험이 있었으며 31.3%는 경험이 없었다. 몸무게 인식은 정상체중으로 인식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과체중 25.9%, 과체중 15.9%, 약간 저체중 12.7% 저체중 4.1% 순이었다. 외모관리비용은 월 10만원 미만 78.6%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6.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6%, 40만원 이상 0.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0.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	0.9
	여자	218	99.1
학년	1학년	60	27.3
	2학년	79	35.9
	3학년	81	36.8
연령	19세 이하	1	0.5
	20~24세	217	98.6
	25세 이상	2	0.9
임상실습	유	160	72.7
	무	60	27.3

Table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신장	150cm~159cm	80	36.4
	160cm~169cm	125	56.8
	170cm~179cm	15	6.8
	180cm 이상	0	0
몸무게	40~49kg	58	26.4
	50~59kg	105	47.7
	60~69kg	46	20.9
	70~79kg	7	3.2
	80kg 이상	4	1.8
다이어트 경험	유	151	68.7
	무	69	31.3
몸무게 인식	저체중	9	4.1
	약간 저체중	28	12.7
	정상체중	91	41.4
	약간 과체중	57	25.9
	과체중	35	15.9
외모관리비용(월)	10 만원 미만	173	78.6
	10 만원 이상~20 만원 미만	36	16.4
	20 만원 이상~30 만원 미만	8	3.6
	30 만원 이상~40 만원 미만	1	0.5
	40 만원 이상	2	0.9
	전체	220	100

3.2. 신체이미지 인식정도

연구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인식정도는 Table 3과 같다. 전체 평균은 신체외식 3.32±0.26점, 신체존중감 3.33±0.53점이며, 신체외식 하위요인은 신체수치심 3.39±0.46점, 신체감시성 3.24±0.41점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에서는 체기능존중감 3.57±0.61점, 체중존중감 3.32±0.84점, 외모존중감 3.10±0.69점으로 나타났다(p<.05).

Table 3. 신체이미지 인식정도 (n=220)

구분	하위요인	M	SD
신체외식	신체감시성	3.24	0.41
	신체수치심	3.39	0.46
	전체	3.32	0.26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3.10	0.69
	체중존중감	3.32	0.84
	체기능존중감	3.57	0.61
	전체	3.33	0.53

by mean standard deviation

3.3. 대인관계유능성 정도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 정도는 Table 4와 같다. 대인관계유능성의 전체평균은 3.49±0.45점이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하위요인은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으로 3.67±0.60이었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요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 3.20±0.4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4. 대인관계유능성 정도 (n=220)

구분	하위요인	M	SD
대인관계유능성	관계형성 및 개시	3.63	0.52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3.67	0.60
	타인에 대한 배려	3.20	0.47
	갈등관리	3.61	0.54
	적절한 자기개방	3.32	0.63
	전체	3.49	0.45

by mean standard deviation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체의식은 다이어트 경험($t=-2.056$, $p=0.05$), 몸무게 인식($t=2.940$,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신체존중감에서는 성별($t=-2.232$, $p=0.05$), 신장($t=-$

3.305 , $p=0.05$), 다이어트 경험($t=-2.377$, $p=0.05$), 몸무게 인식($t=12.821$, $p=0.001$), 외모관리비용($t=3.346$,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성별($t=2.042$, $p=0.05$), 외모관리비용($t=4.33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대인관계유능성의 차이

(N=220)

	구분	신체의식		<i>t/F</i>	신체존중감		<i>t/F</i>	대인관계유능성		<i>t/F</i>
		M	SD	(<i>p</i>)	M	SD	(<i>p</i>)	M	SD	(<i>p</i>)
성별	남자	3.56	.27	1,347 (0.179)	4.16	.20	2,232 (0.027*)	4.16	.45	2,042 (0.042*)
	여자	3.32	.26		3.32	.53		3.49	.45	
학년	1학년	3.36	.28	0,963 (0.383)	3.33	.50	0,413 (0.662)	3.51	.51	0,326 (0.722)
	2학년	3.30	.24		3.37	.52		3.46	.46	
	3학년	3.31	.26		3.29	.56		3.51	.42	
연령	19세 이하	3.50	.00	0,651 (0.523)	3.31	.00	0,609 (0.545)	3.28	.00	0,208 (0.813)
	20~24세	3.32	.26		3.33	.53		3.49	.46	
	25세 이상	3.16	.31		2.92	.43		3.35	.14	
임상실습	유	3.31	.25	1,374 (0.171)	3.33	.54	0,024 (0.981)	3.49	.43	0,301 (0.764)
	무	3.36	.28		3.33	.50		3.51	.51	
신장	150cm~159cm	3.28	.24	1,761 (0.174)	3.23 ^a	.54	3,305 (0.039*)	3.42	.48	1,816 (0.165)
	160cm~169cm	3.34	.26		3.37 ^{ab}	.53		3.52	.45	
	170cm~179cm	3.36	.28		3.56 ^b	.44		3.63	.36	
	40~49kg	3.34	.23		3.39	.52		3.51	.43	
몸무게	50~59kg	3.32	.26	1,049 (0.383)	3.33	.54	0,728 (0.574)	3.45	.44	0,856 (0.491)
	60~69kg	3.32	.27		3.28	.52		3.55	.49	
	70~79kg	3.18	.38		3.43	.73		3.65	.78	
	80kg	3.16	.29		3.01	.37		3.27	.13	
다이어트 경험	유	3.30	.26	-2,056 (0.041*)	3.28	.53	-2,377 (0.018*)	3.49	.48	0,033 (0.973)
	무	3.37	.24		3.46	.54		3.49	.41	
몸무게 인식	저체중	3.34	.17	2,940 (0.021*)	3.11 ^a	.35	12,821 (0.000***)	3.51	.40	0,540 (0.707)
	약간 저체중	3.37	.28		3.36 ^{ab}	.54		3.59	.54	
	정상체중	3.37	.23		3.57 ^b	.50		3.49	.41	
	약간 과체중	3.26	.25		3.22 ^{ab}	.47		3.44	.50	
	과체중	3.23	.30		2.93 ^a	.43		3.50	.47	
외모관리 비용	10 만원 미만	3.32	.25	0,330 (0.858)	3.36	.52	3,346 (0.011*)	3.46	.43	4,331 (0.002***)
	10 만원~20 만원 미만	3.33	.28		3.23	.47		3.63	.52	
	20 만원~30 만원 미만	3.34	.31		3.03	.70		3.61	.36	
	30 만원~40 만원 미만	3.06	.00		2.52	.00		2.06	.00	
40 만원 이상	3.41	.13	4.26	.03	3.94	.39				

by t-test and ANOVA, a, -d,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e

* $p < .05$, ** $p < .01$, *** $p < .001$

3.5. 신체의식, 신체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체의식의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r=-0.303, p<0.001$)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의 관계형성개시와 갈등관리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782, p<0.001$). 신체수치심과 신체존중감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는 외모존중감($r=0.289, p<0.001$), 체중존중감($r=0.415, p<0.001$), 체기능존중감($r=0.181, p<0.01$)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과 대인관계유능성은 관계형성개시($r=0.217, p<0.01$), 불쾌감주장($r=0.218, p<0.01$), 갈등관리($r=0.231,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신체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에서는 체기능존중감과

갈등관리($r=0.293, p<0.01$)에서 가장 높고, 타인배려($r=0.141, p<0.05$)에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6. 신체의식, 신체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한 회귀모형은 $F=2.902(p<.01)$ 로 적합하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1.853으로 2에 가깝게 나타나 독립성이 검증되었고,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으로 설명력은 13.4%이었다. 신체의식($\beta=.16, p=0.016$)과 신체존중감($\beta=.22, p=0.02$)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신체의식, 신체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	체기능 존중감	관계형성 개시	불쾌감 주장	타인 배려	갈등 관리	자기 개방
신체 감시성	1									
신체 수치심	-.303***	1								
외모 존중감	-.116	.289***	1							
체중 존중감	-.107	.415***	.471***	1						
체기능 존중감	.021	.181**	.225**	.228**	1					
관계형성 개시	.017	.217**	.263***	.214**	.210**	1				
불쾌감 주장	.090	.218**	.092	.023	.217**	.680***	1			
타인배려	.141*	.055	.147*	.087	.141*	.525***	.480***	1		
갈등관리	.093	.231**	.237***	.116	.293**	.782***	.713***	.572***	1	
자기개방	.006	.063	.259***	.112	.185**	.616**	.444***	.515***	.597***	1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5$, ** $p<.01$, *** $p<.001$

Table 7.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β	t(p)
(상수)	2.150	1.015		2.119(.035)
성별	-.409	.322	-.085	-1.270(.206)
학년	.078	.071	.137	1.108(.269)
연령	.117	.258	.030	.452(.651)
입상실습	-.107	.125	-.105	-.858(.392)
신장	.050	.059	.064	.844(.400)
몸무게	.012	.045	.023	.263(.793)
다이어트경험	-.039	.056	-.049	-.687(.493)
몸무게인식	.014	.038	.032	.378(.706)
외모관리비용	.072	.047	.102	1.546(.124)
신체의식	.298	.123	.168	2.426(.016*)
신체존중감	.195	.061	.227	3.216(.002**)

$F=2.902(.001^{**}), R^2=.134$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p < .05$, ** $p < .01$

4. 고찰

신체의식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며, 꾸준히 변동되는 무의식의 총체이며 사회적 산물이 되면서 자아정체감의 기반이 된다²⁰⁾. 대학생은 예비사회인으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시기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형성의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졸업 후 사회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 정도를 알아보고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만의 개성과 신체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신체의식 전체 평균은 $3.32 \pm .26$ 점으로 나타났고, 신체존중감은 평균 $3.33 \pm .53$ 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⁶⁾의 연구에서 신체의식의 평균점수는 3.02점, 신체존중감의 경우 3.38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체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사회문화적으로 내

면화된 이상적인 기준과 자신의 신체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상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게 되는데⁶⁾ 치위생과 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의 비해 대학생활 중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의 경험 등 보다 이른 시기에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하게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각과 감시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체의식의 하위요인 별로 신체감시성 평균은 $3.24 \pm .41$ 점, 신체수치심 평균은 $3.29 \pm .46$ 점이었다. 신체존중감은 외모존중감 평균 $3.10 \pm .69$ 점, 체중존중감은 평균 $3.32 \pm .84$, 체기능존중감은 평균 $3.57 \pm .61$ 점으로 정²¹⁾의 연구에서 전공에 따른 여대생들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중 자연계열과 비교해보면 신체감시성 $3.50 \pm .59$ 점, 신체수치심 $2.73 \pm .87$ 으로 신체감시성은 낮고, 신체수치심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의 경우는 외모존중감 $3.94 \pm .30$ 점, 체중존중감은 평균 $3.94 \pm .69$, 체기능존중감은 평균 $3.44 \pm .60$ 점으로 자연계열 전공에 비해 외모와 체중존중감은 낮고, 체기능존중감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와 전공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신체존중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경

향을 많이 띤다면 신체존중감이 높은 것이며²⁰⁾. 이는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기개념에서 파생된 것이다¹⁸⁾.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보건의로 계열로 다른 전공에 비해 관계형성에 이르게 노출되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모와 체중존중감을 높여 자기 신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로 자기존중감을 높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유능성 정도는 전체 평균 3.49±.45점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¹³⁾의 연구 3.44±0.33점, 윤¹⁴⁾의 연구 3.18±0.48, 김²²⁾의 연구 3.25±0.48점 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²³⁾의 연구 3.20±0.27점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⁶⁾ 연구 3.59±.49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3.67±0.60점, 관계형성 및 개시 3.63±0.52점, 갈등관리 3.61±0.542점, 적절한 자기개방 3.32±0.63점, 타인에 대한 배려 3.30±0.47점 순이었다.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능력 배양을 위한 이론적 학습 뿐 아니라 대학생활 중 타인존중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의식은 다이어트 경험($t=-2.056, p=0.05$), 몸무게 인식($t=2.940,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신체존중감에서는 성별($t=-2.232, p=0.05$), 신장($t=-3.305, p=0.05$), 다이어트 경험($t=-2.377, p=0.05$), 몸무게 인식($t=12.821, p=0.001$), 외모관리비용($t=3.346,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체의식이 높아 신체감시성과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체중이 정상체중이라고 인식하고 신장이 클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아 자신의 신체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외모나 체중과 자신을 비교하면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자신의 체형 및 건강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상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성별($t=2.042, p=0.05$), 외모관리비용($t=4.33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사회문화적인 이상적 미에 압력을 받아 이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⁶⁾ 향후 남자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r=-0.303, p<0.001$)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신체수치심은 낮게 나타났다. 신체감시성은 사회문화적 기준에 자신의 신체를 맞추려 하고, 신체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신체는 통제의 대상되어²⁴⁾,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과 자신의 신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수치심을 느끼게 되므로 지속적인 신체감시는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데 부정적인 경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⁶⁾. 대인관계유능성 하위요인의 관계형성 개시는 갈등관리에 가장 높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0.782, p<0.001$). 관계형성 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은 상대방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김²²⁾의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외모나 신체이미지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대인관계유능성 향상을 위해 대학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학습과 훈련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알아본 결과, 신체외모의식($\beta=.16, p=0.016$)과 신체존중감($\beta=.22,$

$p=0.02$)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²³⁾의 연구에서도 외모평가 요인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였고, 김²²⁾의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가 높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성¹⁵⁾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감은 학업 및 직업성취, 우울, 불안 등 정서상태와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은 자신이 내면화 한 신체기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저하되어 대인관계에서 걱정과 불안 등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고, 반면에 자기만의 개성을 인정하고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정립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존중감과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치위생과 학생들이 치과임상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 적응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으로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신체이미지를 정립하여 신체만족도를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일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하게 된 언택트 시대는 친구 관계 등 대학생활에서 경험해야 하는 인간관계 형성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대학생의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경남 소재 J보건대학 치위생과 학생 240명을 대

상으로 2020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220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의식 평균은 $3.32 \pm .26$ 점, 신체존중감 평균은 $3.33 \pm .53$ 점 대인관계유능성 평균은 $3.49 \pm .45$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의식은 다이어트 경험($t=-2.056, p=0.05$), 몸무게 인식($t=2.940,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신체존중감에서는 성별($t=-2.232, p=0.05$), 신장($t=-3.305, p=0.05$), 다이어트 경험($t=-2.377, p=0.05$), 몸무게 인식($t=12.821, p=0.001$), 외모관리비용($t=3.346,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성별($t=2.042, p=0.05$), 외모관리비용($t=4.33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의식 하위요인인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r=-0.303, p<0.001$)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수치심과 대인관계유능성은 관계형성개시($r=0.217, p<0.01$), 불쾌감주장($r=0.218, p<0.01$), 갈등관리($r=0.231, p<0.01$)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신체존중감에서는 체기능존중감과 갈등관리($r=0.293, p<0.01$), 타인배려($r=0.141, p<0.05$)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으로 설명력은 13.4%였으며, 신체의식($\beta=.16, p=0.016$)과 신체존중감($\beta=.22, p=0.02$)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하였고, 남학생의 수가 매우 적어 제한점이 있으나 대학생의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이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ORCID ID

Ji-Young Lee, <https://orcid.org/0000-0003-0507-0617>

참고문헌

1. 김남연, 양난미.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012;13(5):2309-2328.
2. 권성혜, 이수연,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2005;10(1):97-112.
3. Cusumano, DL, Thompsonm JK.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1997;37(9-10):701-721.
4. Davison TE, McCabe MP. Adolescent body image and psychosocialfunction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06;146(1):15-30.
5. 전현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 의식 및 신체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6 김혜영. 대학생의 신체 의식, 신체존중감, 외모관리 행동, 대인관계유능성, 주관적행복감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7. 이계원. 청년기 신체상이 자기만족,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8. R. Harre.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 well. 1991.
9. An CY. Body Image Management Behavior, Self Respect, the Influ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dult Mal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6):620-631.
10. Kim SJ, Kim HH.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2013; 13: 304-1.
11. S. Harter.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Y:, Guildford. 1999.
12. Kim HS, et al.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29-237.
13. 이종렬 등.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능력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2014;14(1):33-47.
14. 윤미혜 등. 치위생(학)과 학생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유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관련성. 융합정보논문지 2020;10(6):183-192.
15. 성미경 등.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20;11(2):45-51.
16. McKinley NM, Hyde JS.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96;20:181-215.
17. 김완석 등. 한국판 객체화 신체 의식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007;26(2):329-34.
18. 김완석.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007;12(2): 231-253.
19. 한나리.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갈등 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반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20. 이정숙. 중·고등학생의 성별, 비만, 타인의 평가와 신체존중감과 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1. 정용화 등. 레저스포츠 참여 여대생들의 객체화된 신체 의식과 참여동기 및 신체존중감의 관계 한국 스포츠학회지 2016;(1)14:4.
22. 김한홍, 김선주. 일부지역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외모만족도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13(12)337-347.
23. 박소영, 구상미. 간호대학생의 신체 이미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2020;10(1):158-168.
24. 김완석 등.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007;13(4):113-134.

ABSTRACT

The Effects of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i-Young Lee* · Mii-Kyoung Je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20 dental hygiene students during July 1–31, 2020. The findings show that the subjects scored means of 3.32 ± 0.26 , 3.33 ± 0.53 , and 3.49 ± 0.45 out of 5 in body consciousness, body 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respectively.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r = -0.303$, $p < 0.001$), as well as between two subfactors of body consciousness. Body sham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factor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uch as relationship initiation ($r = 0.217$, $p < 0.01$), claim for displeasure ($r = 0.218$, $p < 0.01$), and conflict management ($r = 0.231$, $p < 0.01$). Under the category of body esteem, body function esteem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onflict management ($r = 0.293$, $p < 0.01$)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r = 0.141$, $p < 0.05$).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had effect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3.4%. Higher body consciousness ($\beta = .16$, $p = 0.016$) and body esteem ($\beta = .22$, $p = 0.02$)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interpersonal competenc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college student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have an impact on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This raises the need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help students have positive perceptions of their bodies and establish their own individuality and body images to enhance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Keyword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 Esteem, Interpersonal Competence